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처신했지만 결국 하느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반면, 눈을 뜬 사람은 더욱 빛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 2017년 3월 26일 복음 말씀 사순 제 4 주일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요한복음 9,1-41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4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0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11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18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24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25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26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27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29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1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32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39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주임신부 이야기

사랑하는 청년 가족 여러분! 사순시기 잘 보내고 있는지요? 사순시기는 무엇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주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곧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적극적인 실천사항 중에 우리가 평소 소홀히 했던 ‘기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의 최고 모델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매일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볼 것이 많아졌고, 이것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반면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기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 곧 ‘기도시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편리한 기기일지라도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합니다. 그러나 제 영적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늘 조심합니다. 생활의 도구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사순시기에 기도의 시간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비교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 기도가 휴대폰보다 좋은 이유

1. 휴대폰은 무제한 통화라도 돈을 내야하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통화!
2. 휴대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의 성능이 달라지지만, 기도는 어디에서나 가능!
3. 휴대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능!
4. 휴대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 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만 기록!
5. 휴대폰은 부재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느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면서 받아주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침묵을 배워야만 한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침묵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다.” - 켈커타의 마더 테레사

---

## 2017년도 3월 넷째주 공지입니다.

### 지난 행사

#### 주보 나눔 봉사 - 3/19 시작

교중미사 전 주보나눔 봉사를 지난 주일(3/19) 부터 현재 봉사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모니, 뜨락회가 시작 했습니다. 지난주 수고한 하모니 전재민 새실리아, 최보나 가브리엘라, 그리고 뜨락회 이은진 마크라 자매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모회장님 스파게티 점심식사 - 3/19

허은희 마리아 성모회장님께서 하모니와 뜨락회를 위해 손수 맛있는 스파게티와 클램차우더, 샐러드,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맛있게 점심을 먹고 한자리에 모여 인사/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하모니, 뜨락회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모회장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뜨락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카드로 성모회장님께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달 했습니다.

###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 연도 - 3월 매 주일

구 뜨락회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를 위한 3월 매 주일 아침 연미사 봉헌과 더불어 **3번째 기일을 맞이한 19일 주일날은 하모니가 모여 함께 연도**를 드렸습니다. 형제님을 기억하며 일부러 연도에 참석하기 위해 오랫동안 발걸음한 하모니 님들께 특히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성이 하늘에 있는 형제님께 닿을 수 있기를, 또한 형제님의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 드립니다.

###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 3/23 목

매달 네번째 목요일 오후 4시에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빈첸시오 어른들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6시/6시반경에 배식을 시작합니다. **4시, 또는 퇴근 후 6시경에 시간되는 님들, 함께 만나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3/23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 <https://www.cityteam.org/oakland/>)

(\*Cityteam은 1957년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숙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 온 비영리 크리스찬 단체입니다. <https://www.cityteam.org>)

### 영어미사 - 3/26 주일

다가오는 **3/26 주일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성당에서 영어미사가 있습니다. 쉬고있는 영어권 신자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미사에 참여하도록 돕는 본 영어 미사는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26일 영어 미사에 많은 하모니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침/교중미사 참례하는 님들은 오후 4시에 한번 더 미사참례를 하거나, 둘 중 선택을 한다면 마지막 주일날은 오후 4시 미사에 참례하여 영어미사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첫 영어미사가 잘 활성화되어 쉬는 교우들과 주님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26일 오후 4시 미사에 참례하는 님들은 3:30까지 도착해서 미사 안내에** (주차장, 입구, 인쇄물 배포, 등)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나눔 봉사 - 매 주일 교중 미사 전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교중 미사전에 성당 입구에서 주보나눔 봉사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은 하모니와 뜨락회에서 각 1명씩 (오전 10:10 시작), 그리고 부활부터는(오전 10:30 시작) 각 단체에서 1-2명씩 현재 봉사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할 예정입니다. 모두 돌아가며 봉사할 기회가 있을테니 본인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세요. 밝게 인사하고 주보 전달을 하며 신자분들과 서로 얼굴을 익히고, 새로오는 청년들께도 자연스럽게 청년회 소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6일 봉사:**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 감사합니다!

### 연도 - 3/26 교중 미사 후

돌아오는 주일 교중 미사 후에 허옥진 파비올라 자매님의 아버지(박노승 프란시스코) 연도에 참여합니다. **박노승 프란시스코 형제님은 우리와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던 허소연 프란체스카, 허혜연 데레사 자매들의 외조부님** 되시며 우리 공동체 허순구 라우렌시오 총구역장님의 장인어른 되십니다. 고인께서 편안히 하느님 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정성스레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연도를 드리겠습니다.

## 사순 제5주일 십자가의 길 (4/2) - 청년회 봉사

4/2일 주일 교중 미사 전 십자가의 길을 하모니, 트락회에서 봉사합니다. **주송자(1명), 십자가 복사 (1명), 초복사 (2명)봉사에 뜻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전혀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봉사이며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봉사자들은 오전 10:10까지 성당에 도착해 준비하고, 10: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봉사 하느니만큼 봉사자들 이외에도 많은 하모니들이 모여 함께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 사순시기 다짐 실천

사순시기 동안 본인의 다짐을 매일 기억하며 **영신수련과 애덕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실천사항, 경험, 느낌을 서로 나누어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 사순절 전례 (3/1-4/15)

- **교황님의 "사순시기 양심성찰"** <http://www.oakcc.org/node/2849>

###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 그리고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적어도 한번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예수님 마지막 시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성당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성화와 기도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 '성화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을 참고하세요. **[바오로팔콘텐츠] 성화로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 [https://www.youtube.com/watch?v=g2eM\\_-jjxP4](https://www.youtube.com/watch?v=g2eM_-jjxP4)

### - 부활판공성사

매 **미사 30분**전부터 **고해성사가 있으며**, 판공성사표를 작성하여 고해실 안 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 -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

사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다"로 합니다.

### - 특강

**4/2 주일** 교중미사 중 (김종광 요한 트라이벨리 신부님)

**4/9 주일** 점심/대청소 후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 주제: "나는 \_\_\_\_ 이다 2"

### - 성경 쓰기

사순시기동안 신약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과 야고보 서간**을 쓰고 필사한 노트는 **부활 성야 미사(4/15)때** 봉헌합니다. 사순시기동안 참회와 기도, 나눔과 자선, 그리고 성경쓰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단체사진 신청

지난 2/26일 전신자 사진촬영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 본인의 얼굴이 '점'같이 나왔어도 우리 공동체 교우들이 함께한 의미있는 사진이죠. 현상된 사진을 원하는 님들은 친교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사진당 \$5)

## 성물 수거

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된 **성물 (목주, 십자가상, 성모상, 성화, 등)**을 성당 입구에서 수거합니다. 성물은 축복을 받은 거룩한 물건이므로 함부로 버리면 안되고 처분시엔 땅에 묻거나 성당에 가져와 성물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거된 성물은 오کل랜드 교구에 보내져 관례대로 처분될 것입니다.

##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다. <http://band.us/n/aea2T3f9B3UcO>

##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3월은 특히, 우리 청년회 멤버였던 이상준 스테파노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부착:** 성당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름표를 분실했거나 여분이 필요한 분들, 알려주세요.

---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